

##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데살로니가전후서·베드로후서 —

유은걸\*

### 1. 데살로니가전서 2:7

GNT <sup>5</sup>	<u>δυνάμενοι ἐν βάρει εἶναι</u> ὡς Χριστοῦ ἀπόστολοι. ἀλλὰ <u>ἐγενήθημεν νήπιοι</u> ἐν μέσῳ ὑμῶν, ὡς <u>ἐάν τροφὸς θάλπη τὰ</u> <u>ἐαυτῆς τέκνα,</u>
『개역개정』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u>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u>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u>유순한 자가 되어</u> <u>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u>
『새번역』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u>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u> <u>다.</u>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u>마치 어머</u> <u>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u> <u>다.</u>
『공동개정』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u>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u> <u>었으나</u>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u>마치 자기 자녀를</u> <u>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u> <u>다.</u>
『새한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u>무게를 잡을 수도 있</u> <u>었습니다.</u>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u>우리는 젖먹이가</u> <u>되었습니다.</u> <u>유모라도 자기 자녀는 따듯이 돌보겠지</u> <u>요.</u>

\* Ruprecht - Karls - Univ. Heidelberg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서대학교 연합 신학전문대학원 신약학 교수. [jakob38@daum.net](mailto:jakob38@daum.net).

### 1.1. 차이점 관찰

(1) δυνάμενοι ἐν βάρει εἶναι: 『새한글』만 ‘무게를 잡을 수 있었다’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국역본은 ‘권위를 주장하다’의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2) ἐγγεήθημεν νήπιοι: 『새한글』만 ‘젖먹이가 되었다’는 번역을 선택했고, 나머지는 ‘유순하게 처신했다’는 취지의 번역을 제시합니다.

(3) ὡς ἐὰν τροφὸς θάλπη τὰ ἑαυτῆς τέκνα: 『개역개정』과 『새한글』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으로 옮겼으나 의미하는 바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전자는 바울 일행이 유순하여 수신자를 돌본다는 내용이지만, 후자는 수신자가 젖먹이 같은 바울 일행을 돌본다고 말합니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다’는 취지의 번역을 선보입니다.

### 1.2. 외국어 역본 참조

(1) νήπιοι에 대해, LB: ‘arglos’; EIN: ‘freundlich’; 대부분의 영역본은 ‘gentle’입니다(RSV, KJV, GNB).

(2) ὡς ἐὰν τροφὸς θάλπη τὰ ἑαυτῆς τέκνα에 대해, 영역본은 대체로 『새번역』과 같이 번역합니다. ESV: ‘like nursing mother taking care of her own children’; GNB: ‘like a mother taking care of her children’; LB: ‘Wie eine Amme ihre Kinder pflegt.’

###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δυνάμενοι ἐν βάρει εἶναι: βάρος는 본래 ‘짐’, ‘수고’, ‘무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역본이 ‘무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의 뜻을 결국 ‘권위를 내세우다’라는 어구로 말이 통하게 번역했으나, 『새한글』은 ‘무게를 잡다’라고 더 직역에 가깝게 옮기고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말로 잘 번역했습니다.

(2) νήπιοι: 흥미로운 것은 『새한글』이 νήπιος를 사전적 어의인 ‘유아’로 파악하는 데 비해, 나머지 역본은 비유적으로 ‘유순한’ 또는 ‘부드럽다’라고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형용사적인 쓰임새가 의미론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참조, BDAG 671). 만일 사전의 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어린이’로 번역하면, 아래 (3)의 ὡς절도 다르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3) ὡς ἐὰν τροφὸς θάλπη τὰ ἑαυτῆς τέκνα를 직역하면, ‘기르는 이(유모/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정도인데, 번역을 위한 주석에 따라 의미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고려하면 ‘어

머니'가 어울리겠지만, 『새한글』과 같이 νήπιοι를 ‘젖먹이’로 직역하면 ‘유모’나 ‘어머니’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장 전체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바울 일행을 돌봐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번역을 택하면, 7상반절에서 ‘바울이 사도로서 무게를 잡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므로’(7하), 수신자들이 바울 일행에게 선대하길 기대하는 요청으로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 2. 데살로니가전서 4:17

GNT <sup>5</sup>	ἔπειτα <u>ἡμεῖς οἱ ζῶντες οἱ περιλειπόμενοι</u> ἅμα σὺν αὐτοῖς <u>ἀρπαγησόμεθα ἐν νεφέλαις</u> εἰς ἀπάντησιν τοῦ κυρίου εἰς ἄερα· καὶ οὕτως πάντοτε σὺν κυρίῳ ἔσόμεθα.
『개역개정』	그 후에 <u>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u> 그들과 함께 <u>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u>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새번역』	그 다음에 <u>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u> 그들과 함께 <u>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u> ,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공동개정』	다음으로는 그 때에 <u>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u> 그들과 함께 <u>구름을 타고</u> 공중으로 <u>들리어 올라가서</u>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한글』	그다음에 <u>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 곧 뒤에 남은 사람들이</u> 그들과 더불어 함께 <u>구름에 싸여 확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u> .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 2.1. 차이점 관찰

(1)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각 역본은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개역개정』);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새번역』),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공동개정』);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 곧 뒤에 남은 사람들이’(『새한글』)로 각각 번역합니다. 『새한글』이 이례적으로 길게 번역했습니다.

(2) 해당 어구는 ‘구름 속으로’(『개역개정』, 『새번역』); ‘구름을 타고’(『공

동개정』); ‘구름에 싸여’(『새한글』)로, 미미해 보이지만 전치사구 ἐν νεφέλαις를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또 ‘끌어 올려’(『개역개정』); ‘이끌려 올라가서’(『새번역』); ‘들리어 올라가서’(『공동개정』); ‘확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새한글』)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능동으로 처리한 『개역개정』과 『공동개정』, 또 많이 의역한 『공동개정』에 비해, 『새한글』은 매우 차별화된 번역을 제시합니다.

## 2.2. 외국어 역본 참조

(1) 외국어 역본도 『새한글』처럼 이 문제를 섬세하게 다룬 번역이 많습니다. 『새한글』과 비슷한 번역은 ESV입니다. ‘we who are alive, who are left’; KJV: ‘we who are alive and remain’; LB: ‘wir, die wir leben und übrig bleiben.’ 반면 이를 하나의 동사로 처리한 번역도 발견됩니다. EIN: ‘die Lebenden’; GNB: ‘we who are living.’

(2) 서양 성경 중에서도 이 문제를 잘 반영하지 않은 번역이 많이 눈에 띕니다. ESV/RSV: ‘will be caught up ... in the clouds’; GNB: ‘will be gathered ... in the clouds.’ 독일어 성경은 이를 상대적으로 더 잘 표현했습니다. LB: ‘entrückt werden auf den Wolken’; EIN: ‘auf den Wolken in die Luft entrückt.’

##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οἱ ζῶντες οἱ περιλειπόμενοι: 여타 역본들이 ζάω(살다)와 περιλείπομαι(남겨지다)를 하나의 동사처럼 간주해서 ‘살아남다’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원문은 의도적으로 관사를 2번 사용하며 두 동사의 의미를 각각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살아남다’는 사실상 ‘죽지 않았다’는 의미 이상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간결한 문장 형태를 선호하는 『새한글』이 굳이 크리스천을 ‘아직 살아 있고’ 그 결과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과 달리 이 땅에 남아 있는 존재’로 묘사하는 것도,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그들의 처지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시도로 읽힙니다.

(2) ἀρπαγσόμεθα: 성경에서 이른바 ‘휴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유일한 구절인데, ἀρπάζω는 ‘납아채다’라는 낚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를 ‘확 끌려 올라가다’라는 의미로 번역한 사례는 국역본 중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ἐν νεφέλαις를 ‘구름 속으로’가 아니라 ‘구름에 싸여’로 정확히 옮긴 것도 인상적입니다. 휴거의 종착점이 구름이 아니라 공중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 3. 데살로니가전서 5:8

GNT <sup>5</sup>	ἡμεῖς δὲ ἡμέρας ὄντες <u>νήφωμεν</u> ἐνδυσάμενοι θώρακα πίστεως καὶ ἀγάπης καὶ <u>περικεφαλαίαν ἐλπίδα σωτηρίας</u>
『개역개정』	<u>우리는</u> 낮에 속하였으니 <u>정신을 차리고</u>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u>구원의 소망의 투구를</u> 쓰자
『새번역』	그러나 <u>우리는</u>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u>정신을 차리고</u> ,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u>구원의 소망을 투구로</u> 씹시다.
『공동개정』	그러나 <u>우리는</u> 대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u>정신을 똑바로 차리고</u>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u>구원의 희망으로 투구를</u> 씹시다.
『새한글』	<u>우리야말로</u>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u>정신을 맑게 합시다</u> . 믿음과 사랑을 가슴갑옷으로 입고, <u>구원의 희망을 투구로</u> 씹시다.

#### 3.1. 차이점 관찰

- (1) 이 본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한글』은 ‘우리야말로’와 같이 주어를 색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번역본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 (2) 다른 국역본이 모두 ‘정신을 차리고’라는 번역을 택하지만, 『새한글』은 ‘정신을 맑게 하다’는 독특한 번역을 시도합니다.
- (3) ‘구원의 희망의 투구를 쓰자’의 번역에 있어 원문의 문법적 형태를 『새한글』과 『새번역』이 다른 두 국역본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3.2. 외국어 역본 참조

- (1) 우리 본문은 물론 서양 역본에서도 주어의 강조형을 살린 번역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2) 서양 역본은 『새한글』처럼 ‘let us be sober’(ESV, GNB), ‘nüchtern’(EIN)으로 번역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 (3) 서양 역본은 ‘투구’에 대한 문제에 있어 원문 그대로 직역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LB). ESV가 『새한글』과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for a helmet the hope of salvation.’

####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 (1) ἡμεῖς: 그리스어에서는 동사가 주어의 인칭, 수를 밝혀주기 때문에, 따

로 주어를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ἡμεῖς(우리)를 사용하면 강조의 의미가 생깁니다. 사실 국역본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어 역본에서도 이런 측면까지 살펴서 번역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한글』이 원문의 형태를 매우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2) νήφωμεν: 당연한 이야기이겠으나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문(text) 못지않게 맥락(context)도 옮기는 것입니다. νήφω는 원래 ‘be sober’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대부분의 역본은 은유적 표현으로 받아들여 ‘정신을 차리다’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바로 앞 절은 밤에 술 취한 사람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νήφω의 본래 의미대로 ‘정신을 맑게 하다’로 번역했습니다.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잘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περικεφαλαίαν ἐλπίδα σωτηρίας: 기존의 역본 어느 것을 읽는다고 해도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원문의 뜻을 잘 파악했다고 해도 그 형태에 종속된 나머지 우리말다운 문체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역개정』의 번역도 좋지만, 『새번역』과 『새한글』의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씌시다’가 본문의 은유적 의미를 더 잘 살린다고 봅니다.

#### 4. 데살로니가후서 2:6-7

GNT <sup>5</sup>	6 καὶ νῦν <u>τὸ κατέχον</u> οἴδατε εἰς τὸ ἀποκαλυφθῆναι αὐτὸν ἐν τῷ ἑαυτοῦ καιρῷ. 7 <u>τὸ γὰρ μυστήριον</u> ἤδη ἐνεργεῖται <u>τῆς ἀνομίας</u> : <u>μόνον ὁ κατέχων ἄρτι ἕως ἐκ μέσου γένηται.</u>
『개역개정』	6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u>막는 것이</u> 있는 것을 아나니 7 <u>불법의 비밀</u> 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u>그것을 막는 자가</u> 있어 <u>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u> 하리라
『새번역』	6 여러분이 아는 대로, <u>그자가</u> 지금은 <u>억제를 당하고 있지만</u> ,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7 <u>불법의 비밀</u> 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u>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u> ,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공동개정』	6 아시다시피 <u>그자는</u> 지금 <u>어떤 힘에 붙들려 있습니다</u> . 그러나 제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7 사실 <u>그 악의 세력</u> 은 벌써 은연중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그 악한 자를 붙들고 있는 자가 없어지면</u> [그 때에는 그 악한 자가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새한글』 6 그가 자기 때가 되어 드러나기까지, 지금은 그를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7 사실 무법의 비밀이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막고 있는 이가 있는데, 거기서 밀려날 때까지는 그렇게 막을 것입니다.

#### 4.1. 차이점 관찰

위낙 난해하고 논란이 많은 구절이라 국역본도 서로 간에 차이가 크다.

(1) τὸ κατέχον: 『개역개정』은 ‘막는 것’이라고 문자역을 시도하고,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분사를 풀어서 문장으로 옮깁니다(‘그자가 …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자는 … 어떤 힘에 붙들려 있습니다’). 『새한글』도 풀어서 번역하지만, 번역은 상당히 다릅니다(‘그를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

(2) ὁ κατέχων: 『개역개정』은 ‘막는 자’로, 『새번역』은 ‘억제하시는 분’, 『공동개정』은 ‘그 악한 자를 붙들고 있는 자’, 『새한글』은 ‘아직 막고 있는 이’로 번역합니다.

(3) τὸ μυστήριον τῆς ἀνομίας: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불법의 비밀’로, 『공동개정』은 ‘그 악의 세력’으로, 『새한글』은 ‘무법의 비밀’로 옮깁니다.

(4) ἕως ἐκ μέσου γένηται: 직역한 역본은 없고 각각 의역을 시도합니다.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개역개정』), ‘물러나실 때까지는’(『새번역』), ‘없어지면’(『공동개정』), ‘거기서 밀려날 때까지는’(『새한글』).

#### 4.2. 외국어 역본 참조

국역본에서 난해 구절인 이 본문은 외국어 성서도 번역하는 데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대체로 직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ESV: ‘what is restraining’; ‘the mystery of lawlessness’; ‘until he is out of the way.’ LB: ‘was hin noch aufhält’; ‘bis er offenbart wird zu seiner Zeit.’ LB같은 역본도 많이 의역하였습니다.

####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데살로니가후서 2:1-10에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2:4)이 교회를 위협하지만, 그의 발흥을 ‘막고 있는 세력’(2:6)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력을 배후에 둔 ‘막는 사람’(2:7)이 존재하지만, 그를 긍정적인 기독교 내의 인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장차 역사에서 제거되

면(2:7),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최후 종말의 시국이 전개될 것입니다.<sup>1)</sup>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음에도 종말이 신속히 도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짐작됩니다.

(1) τὸ κατέχον: 그리스어의 중성 단수명사를 단순히 ‘~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국문을 읽는 독자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더욱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설이 없다면 『개역개정』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텍스트로 남을 것입니다. 반면 오히려 『새번역』이 『공동개정』보다 더 자유롭게 번역한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새한글』처럼 ‘지금은 그를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옮기고, 그 이상은 해설의 힘을 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ὁ κατέχων: 반면 남성 단수명사(‘막는 이’)는 매우 논란의 대상이 되는 난제입니다. 이 사람이 긍정적인 존재(가령: 하나님)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존재인지도 학계에서는 아직도 토론 중입니다. 다만 『새번역』이 존댓말(‘억제하시는 분’)을 사용함으로써, ‘막는 이’는 하나님이나 성령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논평자의 입장에서는 『새한글』이 중립적인 번역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질문 및 심층적인 연구로 유도한다고 판단됩니다.

(3) τὸ μυστήριον τῆς ἀνομίας: 기존 역본의 ‘**불법**의 비밀’보다는 『새한글』의 ‘**무법**의 비밀’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스어의 접두사 ἀ-는 ‘없음’을 뜻합니다.

(4) ἕως ἐκ μέσου γένηται: 사실 어떤 번역이든 역본만 보고 논평자가 위에서 약술했던 ‘막는 이/막는 세력’의 의미를 알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해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의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는 본문의 ‘함의(implication)’는 물론, 그 표면적인 ‘의미(meaning)’조차 이해할 수 없게 하는 번역입니다. ‘물러나실 때까지는’(『새번역』)이나 ‘없어지면’(『공동개정』)은 매우 소극적으로 본문의 뜻을 밝힐 뿐입니다. 『새한글』의 ‘거기서 밀려날 때까지는’이 그나마 본문의 이해를 방해하지 않은 채, 독자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유도한다고 봅니다.

## 5. 베드로후서 3:13

GNT<sup>5</sup>

καινοὺς δὲ οὐρανοὺς καὶ γῆν καινὴν κατὰ τὸ ἐπάγγελμα αὐτοῦ προσδοκῶμεν, ἐν οἷς δικαιοσύνη κατοικεῖ.

1)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유은걸, “서평: *Kathechon: II Thess 2,1-12 im Horizont apokalyptischen Denkens* (Paul Metzger, BZNW 135, Berlin: de Gruyter, 2005)”, 「성경원문연구」 47 (2020), 362-369, 특히 364 참조.



『개역개정』	우리는 <u>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u> 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번역』	그러나 우리는 <u>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u>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동개정』	그러나 우리는 <u>하느님의 약속을 믿고</u>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여 있습니다.</u>
『새한글』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u>하나님의 약속에 따라</u> 기다리고 있습니다. <u>거기는 정의가 자리 잡고 사는 곳입니다.</u>

### 5.1. 차이점 관찰

(1) ‘하나님의 약속’이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거나(『새한글』), ‘의가 있는 곳’ 앞에 위치하는 것으로 대별됩니다.

(2) ‘의가 있는 곳’이라는 관계절의 술어를 달리 처리했습니다. 크게 보면 『새한글』이 ‘정의’를 의인화하여 사람에게 어울리는 술어를 택했습니다(‘정의가 자리 잡고 사는 곳’). 나머지 국역본은 무난한 번역으로 대동소이합니다.

### 5.2. 외국어 역본 참조

(1) 서양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완전히 다르지만, RSV의 경우 ‘according to his promise’를 문두로 뺄으로써 자연스럽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로 읽히도록 번역했습니다. LB도 잘 옮겼습니다. ‘Wir warten aber auf einen neuen Himmel und eine neue Erde nach seiner Verheißung.’

(2) 『새한글』처럼 확연히 의인화를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영역본은 동사를 ‘dwell’로 번역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격화된 ‘의’를 독자들이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RSV). EIN도 ‘wohnt’로 잘 번역했습니다.

###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κατὰ τὸ ἐπαγγελμα αὐτοῦ: 우리말에서도 문장성분의 위치에 따라서 해당 문장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인지, ㉡ 아니면 그 약속에 따라 정의가 그곳에 위치한다는 것인지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라는 어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어느 쪽인지 애매하게 느껴지고, 『공동개정』은 원문의 형식과는 멀어졌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것은 번역 원칙에 따라 두 문장으로 나누고 술부와 관계를 명확하게 한 『새한글』입니다. 『새한글』은 전체적으로 원문의 어순을 충실히 따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순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문으로 번역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원문대로 번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sup>2)</sup>

(2) ἐν οἷς δικαιοσύνη κατοικεῖ: 고대 문서에는 사물의 인격화가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sup>3)</sup> 특별히 κατοικέω처럼 사람에게 쓰는 동사(‘거주하다’)가 등장하는 본 절은 ‘정의’를 의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가 자리 잡고 사는 곳’이라는 『새한글』의 번역은 이런 점을 잘 포착한 번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6. 소결론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새한글』은 과감한 새 역어 선택과 이해하기 쉬운 문장 구조를 토대로 기존의 역본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번역을 제시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번역이라 기존 독자들에게 생경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으나, 과거 공들여 내놓았던 번역본이 ‘옛날보다 무엇이 새로워진 거냐’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런 번역도 매우 유의미한 시도라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번역만 읽으면 『공동개정』처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번역이라는 인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원문과 비교하면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대단히 충실한 번역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주제어>(Keywords)

데살로니가전후서, 베드로후서, 맥락의 번역, 직역, 원문의 의미.

1 & 2 Thessalonians, 2 Peter, Translation of Context, Literal Translation,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투고 일자: 2024년 9월 6일, 심사 일자: 2024년 9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10월 1일)

2) 번역 어순에 대해서 유은결, “『구약』과 『개역』 한글 성경의 비교와 평가 — 바울서신의 번역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5 (2019), 146. 이에 따르면 원문의 어순을 따르는 게 우리말에서도 더 의미 전달에 유리할 수 있다.

3) 이에 대해서 E.-G. Lyu, *Sünde und Rechtfertigung bei Paulus: Eine exegetische Untersuchung zum paulinischen Sündenverständnis aus soteriologischer Sicht*, WUNT 2.31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281-285.